

2021 포퍼와 콰인 수능

예열지문분석: 문풀로 확장!!

목적 /

1. 지문과 발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다.
2. 지문과 선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다.
3. 문풀을 위해 필요한 숨겨진 상식을 확인한다.

참고: 내 생각은 손글씨체로 적어버림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1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1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16.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해당 부분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 경험을 기준으로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으로 구분함
-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방법에 의해 누적됨
- 예측이 맞고 또 틀리지 않으면 가설은 새로운 지식이 됨

16.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아니요)

'관찰이나 실험'은 '경험'이라는 상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퍼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경험없이 가설을 시험할 수 없겠군요.

17. 뒷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적절하지 않음)

예측이 맞는 것과 틀리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두 개념 중 어느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 즉, 비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7. 뒷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음) 콰인이 아니라 포퍼의 입장이죠.

16.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예)

㉤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예)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16.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예)

'하나씩' = '개별적'이라는 상식을 물어보았습니다.

16.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예)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은 ㉠과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적절함)

하지만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 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과인의 입장 첫번째

-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음
- 전체지식(=가설+기존지식+여러조건)이 시험의 대상임
- ㉡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아니요)
- ㉣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아니요)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는 가설이고, b는 예측, c는 가설을 제외한 전체지식임

- ㉠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적절함)
- ㉤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부적절함)
- b가 실패한다면, 'a+c'의 내용 중에서 하나가 잘못된 것이다. 즉, a나 c 중에서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의 제시도 없이 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1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않음)

17번의 4번 선지를 위해
다음 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글이 안 읽히는 이유 2

명제 2 개,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 3 개, 증명하고자 하는 행위 1 개

해당 증명을 위해 순환되는 것은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이며, 명제나 행위가 순환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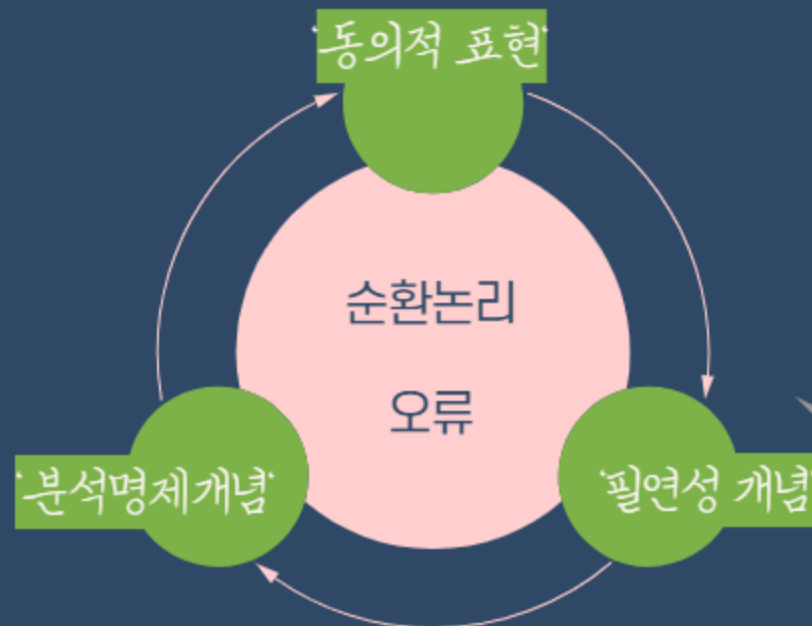
여기에서 더 안 읽히는 상황은 '분석명제 개념'이 무엇인지 모를 때 발생하는데, 분석명제 개념은 '총각'을 '미혼의 성인남성'이라고 정의하는 문장을 분석문장이라고 말하는 개념을 말한다.

1. "총각은 미혼의 남성이다"라고 분석명제일 수 있는 이유는 '총각은 총각이다'라는 명제로 **환원**이 가능하다.
2. 환원이 가능한 까닭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남성은 **동의적 표현**이다.
3. 동의적 표현인 이유는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음)
4. (의미의 같다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 동의적 표현은 **필연성 개념**에 의존한다.
5. (개념간의 환원을 위해서) 필연성 개념은 **분석명제 개념**에 의존한다.

최종적으로 이 증명의 정리는 17번 4번에 정리되어 있다.

1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관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적절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글이 안 읽히는 이유 1

환원은 각 순환논리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개념에 의한 행동에 해당함. 즉, 환원과 다른 개념들간의 층위가 다름을 인식해야함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㉔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 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㉑과 ㉒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콰인은 분석명제가 없다고 말한다.

= 모든 명제는 경험과 연관성이 있다.

= 명제간의 엄격한 구분은 의미도 없고 불가하다.

- 지식을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주변부 지식과 경험이 간접적으로 충돌하는 중심부 지식을 상정함

- 모든 지식은 원칙적으로 수정의 대상이 됨 (단 순능적이 아님)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아니요)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아니요)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아니요)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㉑~㉔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㉑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㉒는 ㉑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적절함)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적절함)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해당 문장에 총체주의의 한계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없이, 같은 내용을 찾으면 5번입니다.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과인은 분석명제가 없다는 증명을 통해 실험에 의한 엄밀한 가설부정을 회피했다. 이를 통해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면 가설을 제외한 전체지식을 수정하여,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1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1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열지문분석: 문풀로 확장!!